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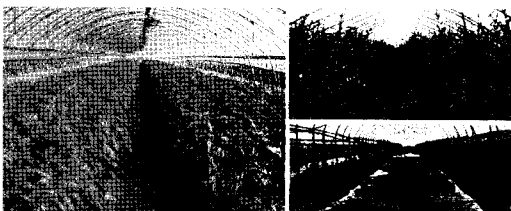
시설하우스재배에 적합한 참깨품종 재배기술

심강보 두류유지작물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하우스에 참깨를 재배하면 돈을 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수박, 참외 등 과채류의 후작으로 하우스에 참깨를 재배하면 기존의 벼 재배보다 노력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소득은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하우스참깨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인 과채류 하우스 재배는 6월경에 앞 작물인 수박이나 참외를 수확하고 난 다음 연작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후작물로 벼를 재배하여 하우스 내 토양의 과잉영양분이나 선충 수를 경감하여 11월경에 다시 과채류를 재배하는 1년 2기작 형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개발된 하우스참깨 재배기술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우스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평안깨를 추천하였으며 40×30cm 간격으로 파종하는 것이 수량증대 효과가 컸다. 또한 옷자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아 후 떡잎이 나오는 시기에 생장 억제제를 3~4회 뿌려주어 참깨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를 낮추어 주거나 꼬투리가 맺히는 마디 간격을 좁혀 수량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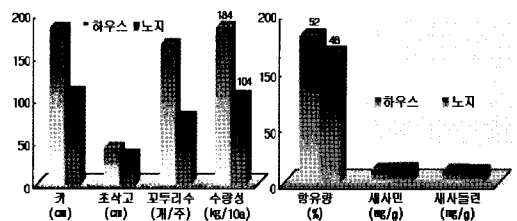


▲ 하우스 평안깨 재배과정(왼쪽부터, 개화기, 성숙기, 수확기)

노력은 반으로, 소득은 두 배로

그동안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하우스 철거, 물대기나 쓰레질 및 모내기 등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지만, 참깨를 재배하면 앞 작물재배에 사용한 하우스시설과 피복비닐 등을 제거할 필요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여 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수량성도 두 배 정도 높아 300평 당 농가소득이 약 220만원정도 예상되어 노지에서 참깨를 재배할 경우에 비해 약 1.8배 정도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과채류 후작 참깨하우스 시범재배를 확대하여 지역 특산 명품화 사업으로 특성화시킴과 아울러 참깨와 같은 소면적 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현장 실용화연구와 더불어 국산 참깨 품질 인증제 도입 및 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0년 5월호)